

## 국무총리실 ODA 통합평가위원회 해외 현지조사 참가

-주동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0. 6.28 - 7. 4 (5박 7일)
3. 출장지: 몽고 울란바토르
4. 출장목적: 정부 국무총리실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위원회의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평가팀장으로 정부 합동 조사단과 함께 중점 지원국가인 몽고 방문 현지 조사
5. 출장 업무 수행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6. 첨부 : 합동조사단 현지조사 보고

---

#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몽골 현지조사 보고〉

---

(‘10.07.06, 대외협력과)

## I. 현지조사개요

### 1. 개요

목적

-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함
- 특히, 사업 발굴, 사업 수행 등 사업 절차 등에 대한 분석 및 사업 내용 등을 통한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함

일정 : 2010년 6월 28일 - 7월 4일 (5박 7일)

현지 조사단

구 분	소속기관명	소관과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평가팀장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	02-3299-3089 010-3211-0254 (djoo@hotmail.com)
간 사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장지순 팀장	02-2100-8458 019-625-1472 chang@pmo.go.kr chzang@hotmail.com
평가위원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강용구 2등서기관	02-2100-8355 010-7490-0713 hernandez@mofat.go.kr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장만희 과장	02-2100-2900 011-9982-9391 jangman@korea.kr
	KOICA	사업평가실	김태영 실장	031-740-0310 010-6799-4912 tykim@koica.go.kr
	수출입은행	경협평가반	선우유민 부부장	02-3779-5360 010-5018-1967 eumin@koreaexim.go.kr

## 2. 일정

일자		주요 활동내용	비고
6월 28(월)		○ 출발, 인천(19:10) - 울란바토르(21:40)	KE 867
6.29 (화)	09:00	○ 대사관 방문 - 방문목적 및 일정 등 협의	
	11:00	○ 수원총괄기관 방문 : 재무부	
	15:00	○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 FAO	
	16:30	○ 수원기관 방문 : 식량농업경공업부	
6.30 (수)	09:00	○ 수원기관 방문 : 자연환경관광부	
	11:00	○ 사업현장 방문 - 몽골 그린벨트 조립 사업(산림청)	
	18:00	○ 몽골 새마을회 관계자 면담	
7.01 (목)	09:00	○ 사업현장 방문 - 새마을 사업 세계화 시범마을(Nalaikh)	
	14:00	○ 사업현장 방문 - 채소재배 온실 설치 지원 사업 (코이카)	
	16:00	○ 사업현장 방문 - 축산능력개발 지원 사업(코이카)	
	17:30	○ 현지전문가 면담 - 녹색농업기술원 원장 면담	
7.02 (금)	09:00	○ 사업 현장 방문 - 축산시범마을 보급사업(KOICA, NGO)	
	15:00	○ 현지조사 결과 보고 - 평가단, 대사관, KOICA	
7.03 (토)	09:00	○ 현지조사 자체 평가회의	
		○ 출발 : 울란바토르(23:10)	
7.04 (일)		○ 도착 : 인천(03:10)	KE 868

### 3. 현지 면담자

기관명	관계자
대사관	○ 정 일 대사 ○ 최진원 참사관 ○ 김광식 2등 서기관
KOICA	○ 이동구 소장 ○ 안창수 부소장
산림청	○ 최준석 단장 ○ 사은혁 봉사단원
재무부	○ Mr. KHURENBAATAR Baavgai (차관원조정책국장)
식량농업경공업부	○ Mr. GANTULGA Tudevkhoo(사무차관) ○ Mr. BATBOLD Sukhbaatar(행정관리과장) ○ Mrs. ERDENEJARGA Tumurbaatar(대외협력과장) ○ Mr. YESUN-ERDNE Davaasuren(기술과장) ○ Mrs. Oyunchimeg(울란바타르시 Tumen Suikh사 CEO)
자연환경관광부	○ Mr. BANZRAGCH Tsesed (개발전략기획국장) ○ Mrs. BAYANKHISHIG Nyamtseren(코디네이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Mr. Sodnomdarjaa (원장)
Nalaikh 구	○ Mr. BOLDBAATAR Zagdsuren(부구청장)
몽골 새마을회	○ Mrs. PARILDA Kulkey Marina(회장) ○ Mrs. JARGAL Balchindorj(총무국장) ○ Mr. DAVAASUREN Avirmed(자문교수)
녹색농업기술원	○ 이해식 원장
지구촌 나눔운동	○ 조현주 (사무소장) ○ 배대욱 간사 ○ 김정화 간사 ○ 최윤자 간사

## II. 핵심요지

- 조사단 면담결과, 몽골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직접 전수하기는 한계(목축업중심의 지역적 특성의 한계)가 있으나, 전국단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소규모이지만, 새마을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성과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였음.
  - 몽골 농촌은 유목사회의 형태인바 우리의 농촌개발모형인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지역사정에 맞게 형성되고 추진되어야함.
  -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현지에서 전파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현지의 새마을회 적극 활용)
  - 개별기관이 실시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임(예, 조림사업+그린몽골리아운동+농촌소득증대사업)
  -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과 성공요인 중에서 현지에 적용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환경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농촌개발사업은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전수'에 필요한 요소별 전문기관 간 협력구도를 구축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새마을 운동의 전수를 위해서는,
  - 첫째,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 구축(연수교재, 강사, 교육 프로그램, 연수내용 전달방법, 새마을 지도자 파견 등)이 필요함
  - 둘째,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의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국내 새마을 운동 전수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성격에 따라

역할 분담 필요)

- 셋째,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원 설립 등)
- 넷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필요(우리의 농촌현실과 개도국의 농촌현실이 다르기 때문)
- 다섯째, 시범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파급 효과(빈곤퇴출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강화) 모색
- 여섯째, 지역의 선정, 사업발굴-집행-사후관리 등에서 NGO와의 협력 강화(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NGO 현장경험 고려)

□ 현장 실사결과 개요는 아래와 같음.

-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산림청)은 새마을운동 전수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2005년부터 몽골 정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2020년까지 몽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이는 몽골 새마을회의의 그린몽골리아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한국의 그린벨트 조림 사업이 다른 공여국의 사업보다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린 몽골리아 사업(행안부, 새마을중앙회)은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임(매년 5월 15일, 10월 15일을 나무심는 날로 지정). 향후 몽골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행안부, 새마을 중앙회)은 몽골 새마을회(최초의 외국에서 조직)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울란바타르시 날라이흐 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참여, 소득증대, 지붕개량, 교량건설 등 소규모이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었음.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평가됨.
- KOICA 무상원조로 추진되었던 축산분야 지원사업, 채소재

배온실지원 사업 등은 성공적인 모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업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함.

- KOICA의 NGO 지원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산시범 마을 보급 사업은 다년간 현지에서 활동해온 NGO(지구촌나눔운동)와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과 면담 등을 통해서 볼 때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Ⅲ. 주요 면담 내용

#### 1. 재무부

- 일시 및 장소 : 6월 29일(11:00-13:00), 재무부 회의실
- 면담자 : Mr. KHURENBAATAR Baavgai(차관원조정책조정국장)
  - 주요 내용 :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유·무상), 몽골의 국가개발 계획, 타 공여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논의함.

####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 무상 사업의 경우, 타 공여국이 일시적 성격의 사업에 집중하는데 반해 몽골 실정에 맞게 추진하였고,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평가가 아닌,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함(현지에서의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수인계작업을 해야 할 것임).
- 초기에 진행되었던 차관사업\*은 사업 준비 및 타당성조사 미흡,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 부족, 진행과정에서의 양측의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한국 정부에서 1억불까지 지원할 의향은 있다고 했지만, 이전 사업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함. 추후 양국 협력관계 및 차관사업을 통한 개발협력을 위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차관 사업의 경우, 몽골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국회 동의 등)에서 승인과정도 어려운 실정임
  - \* 화력발전소건설사업(1996), 정부통신망현대화사업(1999), 도로건설사업(2004) 등임. 특히 발전소는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또한 주변에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별지원전략)

- 한국정부(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했는데, 우선 3년(2010-2012년) 기간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였음
  - 정부행정의 효율화와 급속한 도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행정제도 개선, 울란바토르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 등 두 가지임
  - 참고로 농촌개발분야(새마을운동을 포함)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중점분야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함

### (새마을운동관련)

-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2년 전 한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라는 연수를 통해서 그 정신과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음
  - 만약 몽골인들의 근면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성공요인이 있지만, 몽골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기타)

- 한국에서의 연수 및 봉사단 파견 등에 대해서는,
  - 연수는 국별 연수가 아닌 다른 국가가 포함되는 일반 연수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함. 또한, 국별연수라도 연수내용이나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봉사단 활동의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되며, 한국의 봉사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타 공여국처럼 봉사단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해 주기를 바람

###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이동구 KOICA 몽골 사무소장 등 6명
- 몽골측 : KHURENBAATAR Baavgai(개발재정협력국장) 등 3명

## 2. FAO

- 일시 및 장소 : 6월 29일(15:00-16:00), KOICA 사무소
- 면담자 : Ms. Oyundelger Nataa(FAO 몽골사무소, 대표 비서)
  - FAO의 몽골내 사업 현황 및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함

#### (FAO사업 현황)

- 원래, 중국에서 북한 및 몽골 사업 등 3개국 FAO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몽골 정부의 요청과 몽골에서의 사업 중요성 등을 고려해 2009년 몽골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음
  - 현재 식품안전사업, 조림관리사업 (Forest Management Project) 등을 추진 중

#### (새마을운동관련)

- 한국연수(농업관개연수사업의 통역자로 참여)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
  - 몽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유목생활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새마을의 기본 정신인 의식개혁과 공동체 생활 등은 적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KOICA 소장 등 6명
- FAO측 : Ms. Oyundelger Nataa (FAO 몽골사무소, 대표비서)

### 3. 식량농업경공업부

- 일시 및 장소 : 6월 29일(16:30-18:30), 식량농업경공업부 회의실
- 식량농업경공업부(이하 식량부) GANTILGA Tudevkhuu 차관 등을 면담하고 농촌개발 관련 원조정책 및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에 대하여 논의함

#### (농촌개발 원조사업)

- KOICA 지원 사업(축산, 우물, 채소온실, 할흐골 농업개발

master plan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함

- Gantulga차관은 공여기관들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인 '컨설팅' 및 '이론교육' 형태와 비교하면서, KOICA의 농축산분야 지원 사업은 몽골의 농축산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높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높이 평가함.
- 특히, 금년 초에 구제역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발견함으로써 몽골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또한, 식수개발사업 모형은 타 공여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시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함.
- 채소온실사업은 타 공여국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생산비용과 다로 비효율적이었으나 KOICA에서 지원한 사업은 몽골 환경에 맞는 기술적용으로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몽골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농가에 보급(정부 50% 보조)할 계획임(몽골 정부는 한국의 비닐하우스 생산업체와 접촉하여 자재구입을 진행 중임)
- 할호골 농업개발 마스터 플랜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수출 모색, 외국 및 몽골기업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 한국정부의 후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함
- 특히 이 지역에는 대규모의 광산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농업분야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새마을운동사업)

- 한국에서 연수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몽골정부는 행정구역을 개편할 예정에 있으며, 몽골에서 중요한 분야인 축산 산업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새마을 운동처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몽골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몽골의 수많은 NGO 중에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향후 몽골 사회 발전에 유익

할 것으로 평가함

### (그린벨트 조림 사업)

- 자연환경부와 한국의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몽 그린벨트 조림 사업'은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함
  - 특히, 갈매보리수나무는 비타민의 보고이자, '식품의 왕'으로 일본에서 수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림 사업에 접목할 경우, 사막화 방지는 물론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부처 및 기관별 협력 사업)

- 한국의 농식품부, 농진청, 코이카 등과 분야별로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의 농식품부와는 한-몽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야는 몽골의 땅과 가축과 한국의 기술과 지원을 결합한 사업으로 향후 한국이나 세계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농진청의 종자개발사업, 식품연구원의 기술전수 및 지도자 연수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향후 ODA 발전을 위한 제언)

- 농업의 비중이 높고, 고용인력도 많은 몽골의 환경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
  - 향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축산 및 농촌 인구의 도시 진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지에서 정주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공 산업 등을 발전시킬 계획임
- 향후, 몽골 전 지역을 광산지역, 농업지역, 축산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임. 특히 축산분야는 사료공장, 상하수도, 가공공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한국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음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KOICA 소장 등 6명
- 몽골측 : GANTILGA Tudevkhoo 차관 등 4명

**4. 자연환경관광부**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09:00-11:00), 자연환경관광부 회의실
- BANZRAGCH Tsesed 개발전략기획과 국장 등과 사막화방지 사업, 새마을 운동 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함

**(몽골 그린벨트 프로그램 현황)**

- 2005년부터 사막화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4월에 사막화방지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을 포함한 사업단(사무총장, 배석)을 구성하여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철저한 관리, 기술, 연수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몽골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발표하고, 널리 홍보할 예정임
- 그린벨트 사업에서 각 공여국이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비중이 가장 큼
  - 2010년 9월 고비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타 지방정부에서도 조림 사업을 요청하고 있음

**(새마을운동사업)**

-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몽골의 새마을회는 가장 활동적인 몽골 내 NGO로 알려져 있음
  - 여기에서 추진하는 '그린 몽골리아' 사업은 몽골 그린벨트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본 조림 사업과 협력할 경우,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함

### (향후 전망)

-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이 계획(10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 협력 요망
- 조림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여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함
- 향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활착율을 높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주민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최준석 단장(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7명
- 몽골측 : BANZRAGCH Tsesed 개발전략기획과 국장 등 3명

## 5. 몽골 새마을회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18:00-20:30), Kikyusu Hotel 회의실
- PARIDA KULKEY MARINA 회장\* 등 회원을 면담하고 몽골 새마을 회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함
- \* 한국에서 3년 정도 거주했으며, 새마을중앙회에서 수차례 연수를 받고, 몽골에 필요한 운동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몽골에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세계 최초로 외국에 설립됨)

### (사업현황)

- 2004년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Nalaiikh) 구에서 처음 조직했으며, 우물파기 사업이 최초의 사업임
- 한국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할 수 있다', '잘 살기운동' 등 정신적 측면을 기본으로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을 토대(교재 등 번역)로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며, 적은 비용으로 소득증대 사업(현재 채소재배 실시 중)을 하고 있음(초기 새마을 운동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임)

### (그린 몽골리아 운동)

- 한국 새마을중앙회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0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임
  - 올해 5월 15일에 몽골 정부(대통령실), 한국 새마을 중앙회의 협력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함(매년 5월15일, 10월 15일을 식목일로 지정)

**(체계 및 지속가능성)**

- 울란바토르 시에 본부가 있고, 자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1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되, 회원확보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이를 위한 연수시설을 확충하고 싶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지원을 희망함)
  - 현재는 자체 예산이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임
- 창구의 일원화 필요
  - 경상북도에서는 몽골 새마을회와 협의없이 자체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할 것임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 몽골측: PARIDA KULKEY MARINA 회장, 황창영 팀장\*(새마을중앙회국제협력단), 간부, 자문위원 등 6명
  - \* 대학생봉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국내 6개 대학 총장과 현지 방문 중에 합류함

**6. Nalaikh 구청**

- 일시 및 장소 : 7월1일(10:30-11:30), 구청사 회의실
- BOLDBAATAR Zagdsuren 부구청장, MARINA 몽골 새마을회 회장 등을 면담하고 Nalaikh 구의 새마을사업 현황과 한국



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새마을 사업 현황)

- 이 지역은 과거에 몽골 광산 산업을 주도하였던 곳이었으나, 1991년 사고로 공장이 중단된 이후 내리막을 걷다가, 최근 들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초기에는 마을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Marina 회장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시범 사업 등의 성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음

#### (새마을 사업에 대한 견해)

- Boldbaatar 부구청장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2008년 한국에서 연수 후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음.
- 특히, 지도자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본인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에 노력했음
-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청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임

#### (참석자)

- 우리측 : 조사단, KOICA 소장
- 몽골측: BOLDBAATAR Zagdsuren 부구청장 등 3명

## 7. 녹색농업기술원 면담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17:30-18:30), KOICA 사무소
- 조사단은 17년 동안 몽골에서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해온 녹색농업기술원(원장, 이혜식 박사)를 면담하여, 몽골에서의 농촌개발사업 및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에 대한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 (배경 및 현황)

- 1993년에 몽골에 김치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고, 1998년 '기술원'을 설립하여 한-몽 지자체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추진

해오고 있음

- 1997년에 몽골의 녹색혁명 국책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식생활 개선사업이자 비닐하우스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었음

#### (원조사업에 대한 견해)

- 온실사업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정적·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중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초기에는 단순한 수작업 위주로 보급하는 것이 나을 것임
- 첨단기술이 필요한 온실 재배 사업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예를 들어 특용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산물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조립 사업은 일본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매우 모험적이고 개척적인 사업으로 생각함
  - 다만, 한국의 NGO나 기타 기관에서 일회적이거나 일종의 이벤트로 진행하는 조립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사업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이 활착하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함)

#### (몽골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관련)

- 몽골 새마을 운동은 개인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어서, 조직화 내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다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한국에서의 연수는 특히 내용은 물론 전달 방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강사의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통역자가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성공적인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이지만, 집중·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몽골 국립농대 등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IV. 현장방문조사

### 1. 한몽 그린벨트 사업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11:00-17:00), 룬 솜지역
- 조사단은 몽골 그린벨트 사업 현장(울란바토르 서쪽 125km, 룬솜 지역)을 방문하여,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산림청, 최준석 단장)으로부터 사업진척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실사함.

#### (사업내용)

- 몽골의 사막화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2035)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여 추진중
  - 조림사업(2개 지역, 총 3,000 ha), 교육훈련(기술교육센터 설립, 현지교육 및 국내 연수 실시),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및 워크숍 실시 등의 사업 추진

#### (진행과정, 사후관리)

- 2개 지역 중에 룬 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기술교육센터, 양묘장, 시범 조림지(위탁조림) 등을 각각 둘러보았음
  - 기술교육센터에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비닐하우스에서 1년간의 양묘과정과 2년간의 배양과정을 거쳐, 위탁조림(50 ha, 경비 숙소 2개, 관정 2개소)을 하고 있음
- 다른 협력사업과 달리 연속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현재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을 다른 지역에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고, 지역에서의 노동력이 필요하며(현재 40여명을 고용함),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가 있거나 임대 가능해야 할 것임
  - 또한, 본 사업이 유목민들로 하여금 정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몽골 새마을회와의 연계)

- 몽골 새마을회의 '그린 몽골리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지적
  - 향후 몽골 새마을회와 협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협력할 계획임

## 2.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시범 마을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10:30-14:00), Nalaikh 구 Attai 마을
- 조사단은 새마을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울란바토르 동쪽 80km, Nalaikh 구)을 방문, 부구청장 및 몽골 새마을회 회원 등으로부터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후속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음.

### (시범사업현황)

- 우물파기 사업, 채소재배사업, 지붕개량 사업, 교량건설 사업, 새마을 문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 2004년 경기도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으로 우물파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을 주민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였음. 또한, 지붕개량사업 및 교량 건설 사업 등도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음.
  - 특히, 교량 건설 사업은 초기에는 참여가 미흡했으나, 차츰 참여인력이 많아지고,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지역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음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지만, 마을 사람들의 자립심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였음. 향후에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 (향후 협력 방안)

- 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

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소규모로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참여와 투자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채소재배 온실 설치 지원사업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14:30-15:30), 울란바토르 시
- 조사단은 KOICA의 채소재배 온실 설치 지원 사업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 (사업내용)

- 몽골에 적합한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수확량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
  - 온실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연구원 비닐 하우스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의 파견, 연수 등의 협력

#### (사업효과)

- 사업완료 후 민간에게 위탁(3년 계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음
  -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의 품질이 높고, 인기가 많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음.
  - 비용효과가 타 공여기관의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몽골정부는 이를 400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 또한, 한국의 파견 전문가는 '시설과채류(토마토 및 오이) 재배 기술'이라는 저서를 만들어서 몽골 정부에 제공하였고, 정부는 이를 몽골 전역에 보급할 계획임

### 4. 축산위생능력사업 등 3개 축산 기술 지원 사업

- 일시 및 장소 : 7월 1일(16:00-17:00), 중앙수의연구소 회의실
- 조사단은 우리정부가 무상원조(KOICA)로 지원한 농림식품경

공업부의 축산위생능력지원 사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Sodnomdarjaa 박사(중앙수의연구소장) 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성과,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몽골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전체 사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이며, 그 중 축산업은 약 80%정도임)을 고려하여 축산물의 국제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 증진에 초점을 두었음
- 이를 위해 축산위생능력사업(2004-5), 가축바이러스성 질병진단사업(2007-9),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08-2010) 등 세 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음

####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측면)

-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몽골의 축산위생체계 및 진단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 특히, 기존에 2-3일이 걸리던 가축 질병진단(구제역)이 24시간 내에 판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 다만, 한국에서의 연수과정이 짧은 편이어서 직원들이 장비를 익숙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연수 및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몽골은 향후 국제적 표준을 수립하여 해외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축산시범마을 지원 사업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09:00-14:00), 자르갈란트 슝
- 조사단은 KOICA와의 협력하에 NGO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나눔운동 몽골사업소(소장 조현주)의 사업현장(울란바토르 서북쪽 60km, 손강하이르항 구 자르갈란트 슝)을 방문하여 현지 소장 및 현지 주민 등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지구촌 나눔운동 몽골사업소의 축산마을시범사업으로 2002년부터 8년간 실시해온 사업임. 2004년에는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부터 보급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 가축은행, 사료은행, 소득증대모델, 시범농장, 지역주민 대상 문화협력사업, 교육사업, 연수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측면)

- 협동사업, 가축시범농장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처 마을까지 확대하는 보급사업을 하고 있음
- 봉사활동과 의료봉사활동 등을 민간교류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사업의 인수인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KOICA의 협력측면에서의 견해)

- 보급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정부지원이 단년도 사업단위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어려움
  - 더구나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에 드는 비용이 나뉘어 책정될 경우, 사업을 완성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한계가 있음(인프라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NGO로서 전문인력을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부문별 전문가의 파견에 대한 협력이 필요
- 지역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협력관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초기에 주민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타 민간교류시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현지 참여의 부

분을 사업 내용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함. 또한,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여 일정시점에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사항(공관의견)

- 몽골 내의 협력 사업(새마을 중앙회의 새마을 세계화사업도 포함)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조정 및 창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력 사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몽골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음
- 할호골 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동몽골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V. 평가 및 건의

### □ 몽골에서의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 몽골에서의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은 전국단위의 새마을회 조직(최초로 외국에서 조직됨), 시범마을에서의 자생적 노력, 몽골인의 근면성 등을 고려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소규모이지만, 자발적인 참여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스스로 개척해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초기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음.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첫째, 몽골 농촌은 유목사회의 형태인바 우리의 농촌개발모형인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지역사정에 맞게 형성되고 추진되어야함. 따라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도국 지



역사정에 대한 충분한 선행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과 성공요인 중에서 현지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현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몽골 농촌사회의 발전은 농축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농축산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몽골 농축산업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전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소득 증가를 고려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집중·추진함으로써 빈곤퇴치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개도국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

- 개도국 농촌 환경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또한 농촌개발사업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한국의 농촌개발모형인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에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전수'에 필요한 요소별 전문기관 간 협력구도를 구축하여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향후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우리 ODA의 효과제고를 위해서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첫째,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이 필요함

- 새마을 운동에서의 지도자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 연수를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재, 강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표준화하여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과 성공요인에 대해서 연수생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음
- 연수생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수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의 강사를 양성하여 현지에 직접 투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둘째,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의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

- 각 지방자치 단체, NGO 등에서 몽골과의 협력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됨
- 새마을회가 구성된 지역의 경우,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회로 창구 단일화가 효율적임
- 국내 새마을 운동 전수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성격에 따라 역할 분담 고려

셋째,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도자를 양성하고, 현지에서의 연수 활동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새마을회를 조직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연수원 설립지원)
- 새마을중앙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내에서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자발적인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협동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

넷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우리의 농촌현실과 개도국의 농촌 현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다년간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NGO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지역 연구를 통한 사전조사 및 준비 등의 일련의 과정이 현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음(현지전문가의견 수렴)

다섯째, 시범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파급 효과 기대

-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수원국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 전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추진되고 있어서, 파급효과를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소득 증대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여 보급할 수 있을 정도의 시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여섯째, 지역선정, 사업발굴-집행-사후관리 등에서 NGO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NGO는 충분한 현장경험과 현지주민들과의 협력이 잘 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음.
- NGO가 현지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NGO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전문가 파견, 연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도 포함)
- 지역선정 및 사업 발굴의 초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협력,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협력, 사후관리에서의 협력 등 NGO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